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조류인플루엔자 유효한 항균제 시험

나고야(名古屋) 화학제품회사가 개발한 항균제에 대하여 돗토리(鳥取)대학농학부부속조류유래인수공통감염증역학연구센터의 오오쓰끼(大槻 公一)교수 등을 포함한 연구그룹은 5월 30일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항균효과에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발표하여 안전성이 높은 새로운 항균제로의 이용이 기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항균력이 증명된 것은 피스앤드큐즈(ピースアンドキューズ)에서 개발한 항균제 「G2탐알파(G2TAMα)플러스」이다.

돗토리현(鳥取縣)의 보조금을 받아 2006년부터 2년간 오오쓰끼교수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항바이러스시험에서는 「G2TAM (제4급암모니아염)」을 희석하여 특수 침투액(콩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강독화가 확인된 약독성조류인플루엔자 H5N3에 접종한 결과 3백배를 희석하여 9%의 특수 침투액을 첨가한 G2TAM에서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없었다.

오오쓰끼교수 등의 발표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의 항균제로는 석회가 사용되었으나, 처리업자가 결막염이나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G2TAMα플러스는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오오쓰끼교수 등은 「석회석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제품은 일상적인 위생대책상품으로 2007년 11월부터 전국의 이온(イオン)그룹에서 판매되고 있다(개인통신원).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순수 일본품종 「단풍 닭」이 생산하는 「궁극의 계란」

(주)꼬꼬하우스의 도미다(富田)사장은 (주)고도(後藤)부회장의 순수 일본품종인 「단풍(もみじ)」을 사용하여 병아리부터 일괄 생산한 계란을 「궁극의 계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계란생산을 위한 고집은 사료원료부터 다른데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배합사료는 자사에서 발효시킨 천연효모와 유산균첨가제 「바이오바란스」, Non-GMO·IP옥수수, 더 나아가 지역 내 식품공장의 일본산 대두박 등의 사료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가능한 한 사료원료를 지역에서 조달하고 더욱 안전한 사료 만들기를 실천한다는 경영방침으로 생산하고 있어 사료원료 하나하나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개에 50원의 가격을 상회하는 만족감과 가치를 「궁극의 계란」에서 찾고 있다. 「당사의 고객은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먹거리의 안전·안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입하는 계란을 이후에도 생산할 것이다.

매일 소비자와 만나는 기회가 있으므로 매일 매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도미다 사장은 말한다(계란·육 정보).



## 육 계

### 토종닭 인증기준 설정

먹거리의 안전, 맛, 국산지향 등에 따라 소비자의 토종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지깡(愛知縣)과 아끼다깡(秋田縣)은 각각 나고야코친과 히나이토종닭의 기준을 정했다.

나고야코친은 4월1일부터 아이지깡이 「나고야코친 및 계란·육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품종인 나고야종인 닭」을 정의하였고,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닭의 교배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민간 부화장이나 사육농가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리·판매업자도 표시 등에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끼다깡에서는 일본의 특정 JAS보다 더욱 엄격한 생산·관리기준과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 「아끼다깡 히나이토종닭 브랜드인증제도」를 시작하였다.

대상은 (1)병아리 생산자, (2)히나이토종닭 생산자, (3)도계(食鳥)처리업자, (4)식육처리업자, (5)가공식품제조업자의 5개 사업자 들이다. 4월 중에 신청을 받아 병아리나 토종닭 생산자에게 5월 상순 경에 현지조사를 거쳐 5월 하순에 인증서를 교부한다. 도계처리업자나 식육처리업자, 가공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인증서의 교부는 6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 AI 대응 위해 아시아 연대

농리수산성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도쿄(東京)에서 아시아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20개국·지역에서 방역담당책임자와 연구자 등 약 80명이 참가하여, AI가 발생한 아시아 각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국의 대표는 AI의 발생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AI가 현재에도 아시아 각 지역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AI가 만연하고 있는 지역의 기술지원이나 발생예방과 방역을 위한 법적조치·조기통보체제의 강화, 상호감시(surveillance)·진단능력의 향상, 각국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비 등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이나 진단능력 향상 등의 사업은 아시아지역의 21개국이 참가하여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자금은 일본에서 OIE를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AI와 야생조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작업부회를 설치하여 야생조류 등으로부터 채집한 AI바이러스 정보 등은, OIE의 참고실험실인 홋카이도(北海道) 대학에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참가국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있도록 하며 각국의 AI대책이나 대응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연차회의의 개최 등도 예정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양계**